

“우리동네 캐릭터 모두 모여라!”

수호랑과 반다비(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포돌이(경찰청), 고양고양이(고양시)...

이들의 공통점은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들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 캐릭터이다. 반면, 국민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지역·공공 캐릭터’도 상당수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이러한 지역·공공 캐릭터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18일부터 26일까지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2018 대한민국 지역·공공 캐릭터 대상)’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서(양식)와 캐릭터 이미지파일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콘진, 정책·지역·축제 등 홍보 위한 참가작 공모 공공 브랜드 강화 경제 활성화...대국민 투표로 선정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정책·지역·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를 모집해 대국민 투표를 거쳐 총 8개의 인기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교육행정기관 ▲기타 공공유관단체 등이면 가능하다. 단, 캐릭터에 대

한 저작권을 신청 단체가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만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예선과 본선을 통해 100% 대국민 투표로 진행된다. 신청 단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에게 자신들의 캐릭터를 알리고, 투표 독려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상 1작품(상금 1천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 1작품(500만원), 우수상 1작품(500만원), 특별상 5작품(각 200

만원) 등이다. 특히 한콘진은 수상작을 지속 홍보하고 사업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선정된 작품에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8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 내 홍보부스를 제공하고, 11월 일본 ‘2018 유루카라 그랑프리 페스티벌’에 참가를 지원해 일본 유루카라(일본 지자체 캐릭터의 통칭)와 콜라보 홍보 무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

김 원장은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단체들이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 활동을 펼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숨은 보석들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농어촌公 ‘일하는 방식 혁신’ 대통령상

공공기관 최초 전자수용재결시스템 구축, 업무 전산화·표준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사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공사는 양·배수장,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공공기관 최초로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와 연계했다. 그 결과 수용재결 소요시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적기에 보상해 지가상승분 등 추가 관리비용을 15억 원 정도 절감하는 등 업무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공사는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지가상승분 등 추가 관리비용 연간 1천13억원의 국고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는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의 확산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NS센터)와 협력해 토지 소유자가 보상단계를 실시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사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용재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국민의 만족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국민께 신뢰받는 ‘일 잘하는 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시티면세점 내에 수출농식품 판매홍보관을 개설했다. 우리 농식품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사는 앞서 올해 1월 제2터미널의 개장과 함께 SM면세점에 판매홍보관을 운영,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세에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aT, 인천공항에 농식품 홍보관 개설

제1터미널 시티면세점과 협약...제2터미널 매출액도 상승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시티면세점 내에 수출유망 농식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을 입점해 수출농식품 판매홍보관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판매홍보관은 지난달 8일 시티면세점 간에 체결한 우리 농식품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소비자들과 만나게 된다.

판매홍보관의 명칭은 ‘Korea Gourm

et Market’으로 수출유망 농식품, 여행용 식품, 한국 농식품 선물세트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우수 농식품 약 130개 품목을 입점시켰으며, 우수한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시장개척에 노력하고 있는 중소 식품기업의 신규 판로확대와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마케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aT에서는 올해 1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개장과 함께 SM면세점과 협력해 수출농식품 판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터미널의 활성화와 함께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 이번에 1터

미널 시티면세점에도 신규 판매홍보관을 오픈함으로써 한국의 대표 출입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전체 터미널에서 우수한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인천공항은 2017년 기준 연간 6천200만명이 이용하는 한국의 대표 출입국 관문으로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우리 농식품을 알릴 수 있는 장소”라며 “이번에 시티면세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사학연금 ‘청렴골든벨’ 청탁금지법 이해 제고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지난 11일 나주 본사 2층 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지자체 및 19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조성

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

“빛가람 청렴문화제”의 공단 대표 프로그램이다. 사학연금 배외숙 상임감사는 “이번 행사는 유의해야 할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과 클린 조직문화 구축에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예술위, SF협회 미국 세계대회 참가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으로 한국SF 작품의 해외 홍보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1월 준비위원회 출범을 거쳐 올해 5월 작가, 번역가, 출판인, 영화감독 및 제작자, 만화가, 학자 등 SF계 관련 인사 70여명이 모여 한국SF협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예술위의 지원으로 대표적인 한국 SF작가들과 지난 5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ASPSFCon(아시아태평양 과학소설 컨퍼런스) 참석에 이어, 오는 8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제76차 세계SF대회(월드콘 76)에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예술위 지원으로 세계 SF대회에 참가한 이후, 윤여경 작가는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 SF계 인사들을 모아 아시아협회의 출범에 대한 의견에 합의했으며, 지난 5월 19일 북경에서 아시아SF협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SF협회는 지난 13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와 공동으로 이지용 단국대 교수, 박상준 한국 SF 협회 회장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 ‘SF판타스틱포럼’에 북한 SF 소개를 했고, 이미 발표된 SF 중단편소설 공모를 통해 영화 프로듀서에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SF스토리 피칭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 홀대

나주 생산 식자재 사용 32.7%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역상생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금주(나주·화순) 국회의원원은 최근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구내식당의 나주시 생산 식자재(농·수·축산물) 사용 비율이 평균 32.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빛가람 소재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72.9%의 나주 생산

식자재 사용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전력 거래소는 관내 생산 식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아 상생에 대한 공공기관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있다.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소재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신양파크 호텔

호텔식 정통 중화요리

豫園 (예원)

신양파크 호텔 6층 예원 중식당
회갑연, 돌잔치, 각종행사 연회식, 음향대여
예약문의 062-226-3888~9